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Daishin Strategy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종료, 기대감은 현실이 될까

- 신정부 허니문 기간,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
-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방향성 재확인. 시장 기대는 정점 통과
- 향후 정책 집행 성과와 기업 실적 개선 여부가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

임기 초 100일은 정책 추진력의 골든 타임,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이재명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대통령 임기 초 100일은 국정 추진 기조와 리더십의 시험대이자 향후 임기 내 정책을 실행할 추진력을 축적하는 골든타임으로 해석된다. 증시에서도 정책 기대가 가장 크게 형성되는 시점이며,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 글로벌 증시 호조에 '코스피 5,000' 정책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더해지며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100일 기자회견의 시그널은 본격적 추진에 앞선 정책 기조의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기자회견,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을 공개해왔다, 긴급 추경과 소비쿠폰으로 내수 진작을 시도했고, AI 성장전략과 K-붐업(콘텐츠, 뷰티, 바이오, 식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상 등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의 틀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정상화'를 키워드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물적분할 규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100일 정책 기자회견은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기준 50억→10억) 철회 여부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였으나, 대통령은 원칙적 과세 필요성과 동시에 시장 심리를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수준으로 에둘러 정책 철회를 시사했다.

산업정책 역시 기존의 디테일을 정리한 수준이었다. 문화산업에서는 박진영 위원장 기용을 통한 글로벌 교류 강화, 에너지에서는 "탈원전 회귀는 아니다"라는 실용적 믹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강화가 현실적 정책임을 반복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시장 기대 측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했다.

허니문 이후의 과제, 기대에서 실행으로

이제 이재명 행정부의 허니문 기간은 사실상 종료됐다. 첫 취임 100일동안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렸다면 앞으로는 실제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정점을 통과하며 차익실현 매물이 우세할 수 있다.

향후 주가 향방은 1) 개정된 세법과 상법의 적용이 실제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법 집행 및 법률 실효성 2) 산업 정책에 이은 기업 실적의 가시성, 3) 대미 협상(자동차 관세, 기술인력 비자 등), 북미 대화 등 외교 현안과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 이벤트 보다는 실제 제도 변화로 인한 산업/기업별 성과 추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그림 1.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요내용 – 자본시장 정책

자본시장·양도소득세·코스피 5,000

- **판단**: 한국 주식은 저평가(PBR 0.3~0.4 등 예시), 지배구조·불공정 관행이 신뢰 저해.
- **지배구조·공정성**: 물적분할·허위/부정공시·시세조종 엄단, 부당이득 원금까지 몰수 실효화, 상시 합동점검.
- **세제 원칙**: 시장 활성화·정상화에 맞게 분리과세·세율·**대주주 기준 설계. 50억 비과세 시장 심리 고려해 유지** 가능.
- **목표**: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용이화), 코스피 5,000도 정상화·성장 반영 시 달성 가능.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 **판단**: 연기금의 국내비중 제한은 국내 시장 저평가·불신이 본질. 신뢰 회복이 비중 확대 논의 전제.
- **시장질서**: 불공정·조작 실시간 합동 모니터링, 신속 수사·엄정 처벌, 원금까지 몰수 적용.

재정정책·국가부채

- **스탠스**: OECD 대비 부채비율 여유 있으나 무한 증가는 불가.
- **확장 재정의 조건**: 침체 국면에서 응급조치적 투입 필요. 과거와 달리 구조적 투자에 집중(미래 생산성·경쟁력 제고).
- **장기 해법**: 성장률 제고로 부채비율 안정—확장과 건전성의 균형.

자료: 국회방송,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요내용 – 산업 정책

대미 투자·비자(현장 인력 파견 문제)

- **상황**: 미국의 불법취업 엄격 잣대로 기술자 단기 파견에 비자 애로·단속 발생.
- **영향**: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부담 확대 우려.
- **대응**: 비자제도 정상 운영·신규 유형·TO 확충 등 제도 개선을 미측과 협의

대중문화 정책

- **기조**: 문화산업 육성은 새정부 산업 정책 핵심 중 하나
- **글로벌 진출:** 박진영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에 주력할 것

에너지·원전·기후환경에너지

- **기조**: 탈원전 회귀 아니며, 실용적 믹스.
- **원전**: 기존 원전은 안전성 전제로 수명연장·완공. 신규 대형은 입지·수용성·안전성으로 단기간 해법 아님(최소 15년).
- **SMR**: 유망하나 상용화 과제 남음.
- **단기 전력 수급**: 대규모 전력수요(AI·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보강이 현실적. 화석연료 증설은 NDC·탄소중립과 충돌

지역 균형발전

- **전환**: 불균형 성장의 한계—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
- **수단**: 재정·SOC·정책 인센티브 지방 가중, 모든 정책에 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화, 거리·여건 비례 차등지원(아동수당·지역화폐).
- **거점 육성**: 세제·규제·전기요금·정주여건 패키지로 신(新) 산업·도시권 조성.

자료: 국회방송,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요내용 – 외교 정책

한미 협상(관세·안보 패키지)

- **접근**: 안보·주둔군·핵연료·전략적 유연성·방위비·금융패키지·관세 등 포괄 연계.
- **원칙**: 국익·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합의 불가. 일방적 관세 인상 방어가 1차 목표.
- **메시지**: 서두르지 않되 실익 중심으로 지속 협상

북미 대화(APEC 등)·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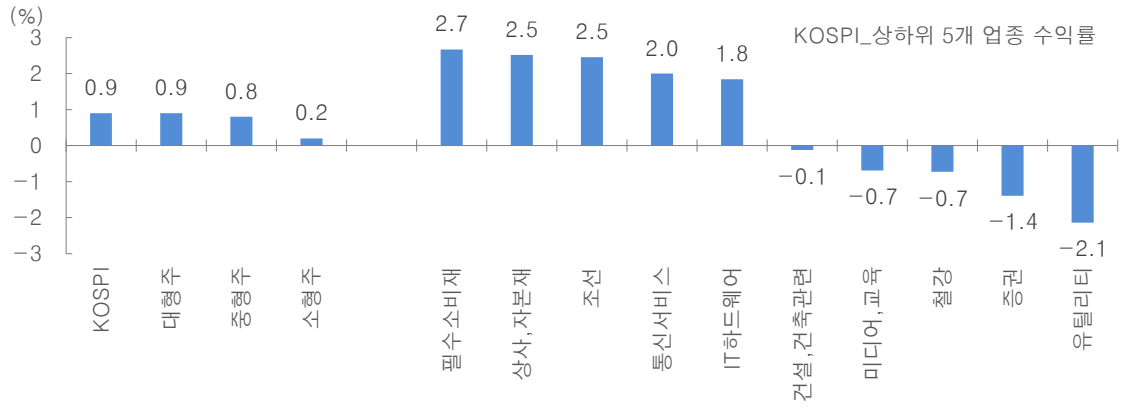
- **현황 인식**: 북한 태도 냉랭,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는 중단 기조 유지.
- **전략**: 남북만의 문제 아님—북미 관계 개선이 관건. 한국은 환경 조성·길 열기 역할('페이스메이커').
- **조치**: 불필요한 긴장 유발 행위 축소 등 신뢰 축적형 완화 지속.

한일 관계·사도광산

- **기조**: 과거사·영토는 원칙, 경제·사회·민간 교류는 미래지향—투트랙.
- **사도광산**: 사전 협의했으나 입장차로 불참—논쟁 확산보다 차분한 협상 지속.
- **목표**: 공급망 재편 등 구조 변화 속 경제·안보 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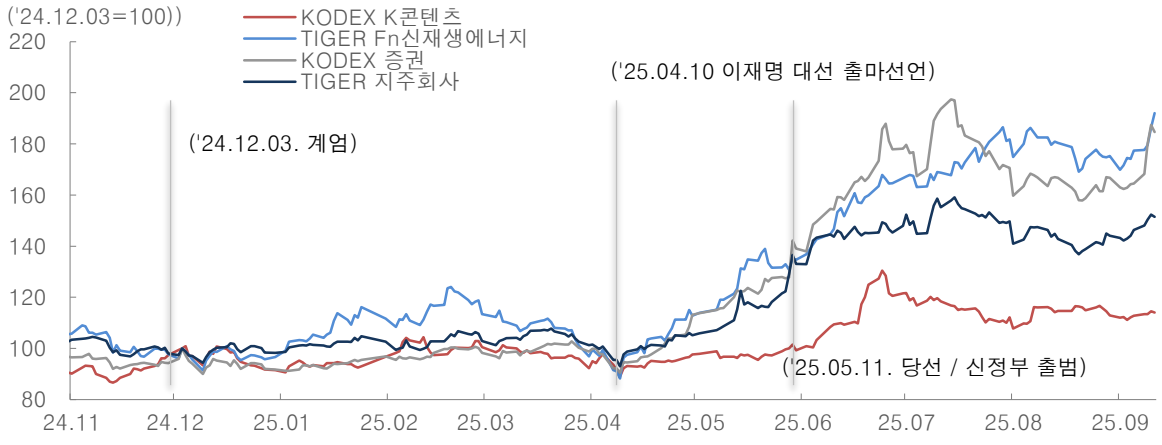
자료: 국회방송,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9월 11일, KOSPI 상/하위 업종 수익률, 정책기대 업종인 증권, 미디어/교육 등 기대감 반납



자료: Fu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신정부 출범 및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업종 주가 추이



자료: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AI 대전환(15)	
기업	▸ AI 로봇
	▸ AI 자동차
	▸ AI 선박
	▸ AI 가전
	▸ AI 드론
	▸ AI 팩토리
	▸ AI 반도체
공공	▸ AI 복지·고용
	▸ AI 납세관리
	▸ AI 신약심사
국민	▸ 국내 AI인재
	▸ 해외 AI인재
기반조성	▸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
	▸ 국가 AI 협력

초혁신경제(15)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반도체
	▸ LNG 화물창
	▸ 초전도체
	▸ 그래핀(Graphene)
	▸ 특수 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 해상풍력·HVDC
	▸ 그린수소·SMR
	▸ 스마트농업
	▸ 스마트수산업
	▸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K-붐업	▸ K-바이오·의약품(AI 바이오)
	▸ K-콘텐츠(게임, 웹툰 등)
	▸ K-뷰티(통합클러스터)
	▸ K-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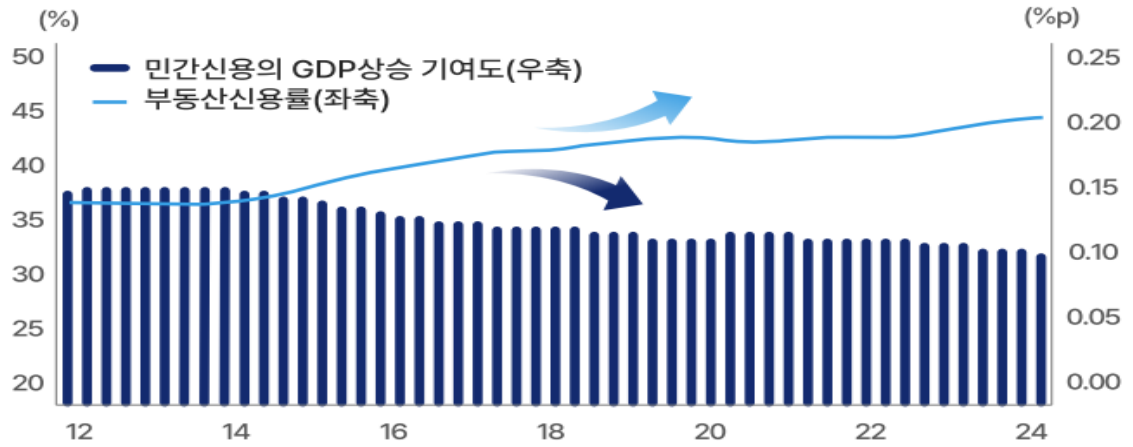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2025년 하반기 즉시 시행할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 지정**

프로젝트	주요 내용
기업 분야 – 7대 선도 프로젝트	
AI 로봇	–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 · 핵심부품 포함) – 물류 휴머노이드 선도 실증 · 보급 → 제조 · 건설 · 서비스 확산 – 업종별 특화 지능형 군집로봇, 고중량 휴머노이드 개발
AI 자동차	– 완전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집중투자(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AI SW) – 민관 합동 생태계(얼라이언스) 구축, 인력 양성 – 자율주행차 데이터 개방 및 교통서비스 확대 – 자율주행 법 · 제도 정비, 실증 지원
AI 선박	– 지능형 항해시스템 및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 규제특례 적용,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지원– 운항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AI 가전	– TV · 냉장고 등 가전에 AI 탑재 – AI 기반 홈서비스(음성 · 제스처 제어, 건강 · 식단 관리 등) 실증 확산
AI 드론	– 5대 분야(항공 · 소방 · 농업 · 시설관리 · 물류) AI 드론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제조 생태계 조성, 비행 규제 합리화 – AI 항공 · 소방 드론 우선 실증 · 보급(2025 하반기)
AI 팩토리	– 주력 제조업 특화 AI 솔루션 보급 – 로봇 · 시설 · 장비 도입 통한 제조공정 AI화 – AI 기반 공정 최적화 · 무인화 실증
AI 반도체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 보급(차량 · 가전 · 로봇 · 드론 중심) – 대기업 수요–국내 팹리스 · 파운드리 연계 개발
공공 분야 – 3대 선도 프로젝트	
AI 복지 · 고용	– 개인 상황 · 지역 맞춤형 일자리 · 복지 서비스 추천 – 24시간 안내 · 신청 · 접수 가능 (민원 자동화)
AI 납세관리	– AI 세무상담 · 검색(2026년 도입) – 납세신고 · 납부 자동화, 홈택스 전면 개편(2027년) – 탈세 의심 사례 AI 탐지 · 분석
AI 신약심사	– AI 활용 자료 대조 · 검증, 심사서 초안 자동작성 – 제네릭 허가(2026년) → 신약 허가 단계적 확대

자료: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과도한 부동산 대출비중으로 인해 자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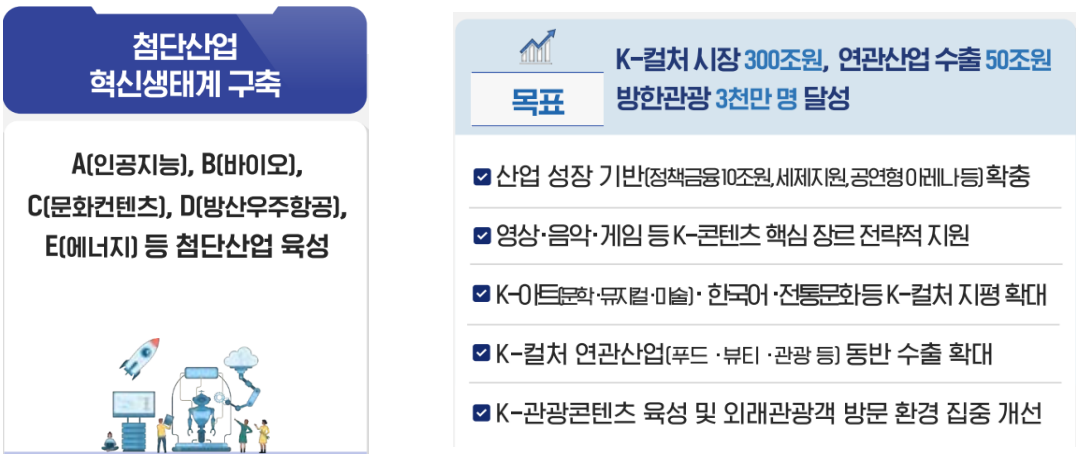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AI 등 산업 인프라와 지역 균형발전 시너지 정책

자료: 민주연구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과 문화 컨텐츠 산업 육성



자료: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 안보를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

자료: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